

1. 인구지리

□ 면적

- 서유럽 남부지역에 위치한 공화제 국가로, 면적은 약 55만 1,695 km²(한반도의 약 2.5배)

□ 인구

- 2011년 기준, 프랑스 인구는 약 6,543만 6,552명임.

□ 기후

- 해양성, 대륙성, 지중해성 기후로 지역을 구분할 수 있는데, 해양성 기후는 국토의 서부지역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기온의 연교차, 일교차가 적음. 또한 동쪽으로 갈수록 대륙성 기후가 나타나는데 기온의 연교차, 일교차가 크며 강수량도 많은 편임. 지중해성 기후는 남쪽 해안에서 주로 찾아볼 수 있는데 기온의 변동이 크며, 강수량은 적은 특징을 보임

□ 한국 동포 수

- 2012년 기준, 한국 동포 수는 1만 2,684명임

구분			지 역 총 계			주 요 지 역		
						파리 및 근교		
			남	여	계	남	여	계
재외동포총수			3,726	8,958	12,684	2,388	6,038	8,426
거주자	외국국적동포		238	548	786	156	352	508
	재	영주권자	693	1,575	2,268	451	1,002	1,453

격별	외국민	체류자	일 반	1,008	2,297	3,305	645	1,470	2,115
			유학생	1,787	4,538	6,325	1,136	3,214	4,350
		계		3,488	8,410	11,898	2,323	5,686	7,918
재외국민 등록 수				2,641	3,958	6,599	1,654	2,482	4,136

구분				주 요 지 역		
				기타지역		
				남	여	계
재외동포총수				1,338	2,920	4,258
거주자격별	외국국적동포			82	196	278
	재외국민	영주권자		242	573	815
		체류자	일 반	363	827	1,190
			유학생	651	1,324	1,975
		계		1,256	2,724	3,890
재외국민 등록 수				987	1,476	2,463

출처 : 외교통상부

< 2012년 상반기 양국 간 투자 현황 >

구분	투자액
對프랑스	25건, 1억1350만 달러 [누계: 888건, 63억 1595만 달러]
對한국	16건, 1억4,519만 달러 [누계: 888건, 26억 1826만 달러]

2. 정치 역사

□ 정부 형태

- 국가형태는 공화제, 정부형태는 대통령제(5년 임기)이며, 의회는 상원 및 하원, 이원제로 구성되어 있음

< 상원 및 하원의 정원 및 임기 >

구분	정원	임기
상원	343	6년
하원	577	5년

□ 프랑스의 원수

- 국가 원수는 2012년 5월에 취임한 프랑수아 올랑드(François Hollande)대통령임.

□ 정치 형태

- 프랑스 대통령은 직선제로 선출되며, 각료들은 대통령이 임명한 총리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결정하여 총리와 공동 서명한 대통령 법령으로 임명됨.
- 대통령은 임기 5년의 직선제로 선출되며, 중요한 국가정책을 집행하는 국회 해산권과 비상조치권을 가짐.
- 의회는 대통령을 불신임할 수 없으며 내각에 대해서만 불신임할 수 있으므로 대통령은 내각과 의회에 대해 우월한 지위를 가짐.
- 의회는 직선되는 국회(하원)와 간선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대표하는 상원으로 구성
- 프랑스식 정부형태의 특징은 일단 국가 원수인 대통령과

내각의 총책임자인 총리의 선출방식이 다르고 담당 분야가 분리되어 있다는 점임.

- 이 제도의 장점은 대통령제의 장점과 순수의원내각제의 장점을 합쳐 놓음.
- 일단 국방이나 외교, 그리고 국가의 비상사태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여 일관된 정책을 취할 수 있음.
- 또한 행정부는 의회에서 선임된 내각이 담당함으로써 국민의 요구에 대해서 빠르게 대응할 수 있으며 내각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대하여 책임을 짐으로써 책임정치를 실현할 수 있다는 점 역시 장점으로 부각됨

□ 프랑스의 수도 및 주요도시

- 수도는 파리이며, 프랑스는 26개의 지역권으로 구분됨. 이 중 22개의 지역권은 프랑스 본토에 위치해 있으며, 4개의 지역권은 해외영토에 위치

< 2010년 주요 도시의 인구 추이 >

랭킹	도시	인구수(명)
1	Nord	2 576 770
2	Paris	2 243 833
3	Bouches-du-Rhône	1 972 018
4	Rhône	1 725 177
5	Hauts-de-Seine	1 572 490
6	Seine-Saint-Denis	1 522 048

7	Gironde	1 449 245
8	Pas-de-Calais	1 461 387
9	Yvelines	1 408 765
10	Val-de-Marne	1 327 732

출처 : 프랑스 통계청

□ 한국과의 관계

< 한 - 프랑스 주요 협정체결 현황 >

2009. 01	워킹홀리데이 협정 발효
2008. 10	취업관광사증협정
2006. 09	영화 공동제작 협정
2004. 01	사회보장협정
1981. 04	과학 및 기술협력 협정
1981. 04	경제협력에 관한 협정
1980. 09	어업협정
1977. 12	투자 장려 및 보호에 관한 협정
1967. 02	사증면제에 관한 각서 교환
1963. 03	관세에 관한 각서 교환
1961. 02	상표에 관한 각서 교환

- 2010년 한국과 프랑스는, 정상회담을 통해 외규장각 도서 반환에 합의함. 형식적으로는 5년마다 갱신하는 대여 형태이나, 실질적으로는 영구 반환이라고 말할 수 있음

- 한국과 프랑스는 1886년 6월 우호통상조약을 체결한 후, 현재

까지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

- 한-EU FTA 시행 1년 후 프랑스 정부의 수입감시요청 대상에 오른 한국산 자동차

○ 개요

- 프랑스 정부는 2012 년 7 월 25 일 자국 자동차산업 활성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“작년 7 월 한-EU FTA 발효 이후 급증한 한국산 자동차 수입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치의 이전 단계인모니터링(우선 감시) 조치를 EU 에 요청할 방침임”을 밝히고 8 월 3 일 EU 집행위에 한국산 자동차 수입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 줄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함.

- 그리고 몽프부르 프랑스 생산 활성화 장관은 8 월 25 일 집권 사회당 전당대회에서 “현대-기아 그룹이 받아들일 수 없는 덤핑을 하면서 자국 기업들과 경쟁한다.”고 비난하는 등 자국 자동차 산업 위기에 대한 책임을 한국 자동차 업계에 전가하기 위한 발언을 서슴지 않았음.

○ 우리 정부 및 업계의 반응

- 이에 우리 정부는 지난 8 월 « 프랑스의 비난이 부당하기 때문에 불안하다. 우리는 유럽연합이 교역의 자유화를 저촉하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기를 바란다. 자유무역 협정이 프랑스 자동차 제조업체의 어려움의 요인이 아니다»며 프랑스의 비난을 인정하지 않고 브뤼셀이 프랑스의 보호주의 경

고음에 견뎌내 줄 것을 요구했음.

- 현대는 « 우리 자동차의 성공이 자유화 협정에 의한 것으로 말하도록 하는 것은 거짓일 뿐만 아니라 모욕하는 것이다 »라고 항변하면서 몽뜨부르 장관에게 금년 상반기 중 유럽에 판매한 모델들의 88%는 체크, 터키 또는 인도 등 한국 밖에서 제조된 것이며 상반기에 르노가 르노-삼성 자회사를 통하여 프랑스에 현대보다 더 많이 수입했다는 근거 수치를 보냈음.

○ 유럽연합(EU) 집행위의 동향

- 이러한 과정에서, 8 월 27 일 카트린 레이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한국산 자동차 수입을 모니터링해 달라는 프랑스의 요구를 “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다”고 밝힘으로써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음.

< 2012년 1월~8월 양국 간 교역 현황 >

단위 :달러

구분	주요 품목	금액
對프랑스 수출	무선 통신기기, 선박, 자동차	16억1742만
對프랑스 수입	펌프, 의약품, 화장품, 자동차 부품	30억2425만